

‘최초 금융지주사’의 부활... 우리은행, 지주사 재전환

금융위, 금융지주 설립 예비인가
검직 무계... 선출방식·임기 쟁점
12월 28일 주총 전까지 선출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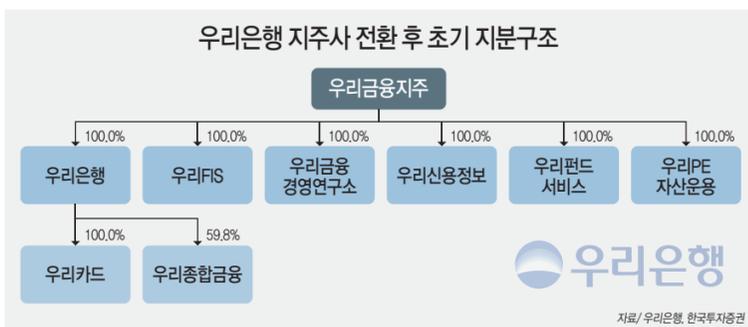
우리은행이 지주 해체 4년 만에 다시
금융지주사로 부활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금융지주 회사 설립을 예비인가했다.

지주사 전환을 추진할 때부터 인가를 받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

문제는 지배구조다. 이미 행장과 회장 겸직과 분리 여부를 놓고 추측과 하마평은 무성한 반면 결정해야 마감시한은 촉박하다.

우리은행은 다음날인 8일 바로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 회장 등 지배구조를 비롯해 지주사 설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초 금융지주→매각·해체→지주 전환
우리은행이 지주 해체와 부활이라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다.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평화, 경남, 광주은행과 하나로종합금융이 더해져 국내 최초 금융지주사로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2조8000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이 들어갔다.

공중분해 된 것은 2014년이다. 정부가

지분매각에 나섰지만 ‘통’으로 사겠다는 곳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 ‘조개’ 팔아야 했다. 우리투자증권은 NH농협금융, 우리아비바생명은 DGB금융, 경남은행은 BNK금융, 광주은행은 JB금융으로 넘어갔다.

민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18.4%를 가진 최대주주다. IMM PE와 동양생명, 한화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자

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으로 구성된 7대 과점주주의 지분은 27.22%다.

◆끝나지 않은 민영화 지주전환 ‘잡음’

지주전환을 추진하면서 잡음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금융당국이 최대주주로서 나름의 방침을 밝히겠다고 하면서다.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논의될 내용보다는 정부 의견을 전달할 예보 측 이사의 입만 바라보게 됐다.

금융위원장의 말 한 마디에 따라 지주 회장직에 대한 관측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1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여서 당연히 지배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생각이 있고, 당연히 저희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은 회장직 분리로 쏠렸고, 순식간에 회장 후보군들의 하마평이 쏟아졌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다른 은행들을 봐도 겸직을 했다가 결국은 분리하는 쪽으로 갔다”면서 “우리은행은 은행 비중이 90%가 넘어 처음부터 분리하는 게 맞는 지, 겸직으로 하면 언제까지 겸직을 할 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초기 겸직이 유력해지면서 그 기간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주사 회장을 결정해야 할 마감시한은 오는 23일이다. 12월 열리는 주주총회 안건인 주주이전계획서에 지주사 회장 이름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날 전까지는 회장이 누구인지 정해야 한다.

지주 설립은 카드와 증권은 은행 밑에 계속 두고, 우리은행을 포함한 기타 6개 법인을 지주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추진한다. 주주총회는 다음달 28일이며, 신주는 내년 2월 13일 상장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9월 은행대출 연체율 0.54% 전월 대비 0.07%p ‘하락’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4%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채권 정리가 2조3000억원 규모로 신규연체 발생액 1조3000억원을 웃돌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9%로 전월 말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55%로 전월 말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34%로 전월 말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1.78%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4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1.80% 안팎을 유지 중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월 말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0.19%, 신용대출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0.42%로 전월 말 대비 각각 0.02%포인트, 0.08%포인트 낮아졌다.

/안상미 기자

저금리 지속에 생보사 주가 ‘울상’... 금리인상이 ‘관전’

저금리 인한 이원차마진 민감도 커
위험손해율 하락세, 시차이익 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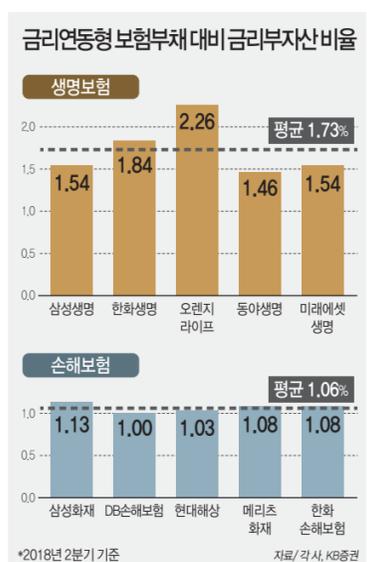
생명보험사들의 주가가 금리의 역곡에 맥 빠진 모습이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원차마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큰 구조(금리부자산의 규모가 금리연동형 부채 대비 1.5~2.3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의 실적과 주가가 살아나려면 금리가 올라야 한다. 보험주의 주가 회복 메커니즘은 ‘시장금리 상승→운용자산이익률 개선과 공시이율 인상→보험상품 판매와 신규계약 유입→자산과 이익 성장→실적 및 밸류에이션 회복’이다.

7일 증권가에 따르면 생명보험주의 12개월 예상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46배에 머물고 있다. 최근 2년 평균(PBR 0.61배) 대비 23.4% 낮은 수준이다.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이원차마진(보험사가 보유한 금리부자산에서 보유금리와 부채 평균 부담이율의 차이) 개선이 늦춰질 것이라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생명보험사의 금리부자산은 금리연동형 부채 대비 1.5~2.3배 가량 커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이원차마진의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시장금리 상승 구간에서는 이원차마진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금리 하락 구간에서는 개선 여력이 제한적인 구조다.

금리부자산 중 잔존만기 10년 이상 장기자산의 비중도 높아짐에 따라 장기금

리의 하락이 생명보험사의 보유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RBC(위험기준 자기자본)상 산출되는 부채의 듀레이션(채권 가격변화 민감도) 잔존 만기 구간이 30년(현행 25년)으로 확대된다. 또 2021년 도입 예정인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부채의 잔존 만기에 제한이 없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자산의 비중 확대가 예상된다.

반면 부채 부담이율의 하락세는 더디다. 생명보험사의 평균 이원차마진은 -78bp(상반기 기준, 1bp=0.01%포인트), 손해보험사 평균은 43bp로 추정된다. 또 금리연동형 부채에 대한 평균부담이율은 3.1%로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금리확정형 부채에 대한 평균 부담이율은 5.7%로 보유금리(3.4%)보다 높다.

시장금리가 오르지 않는다면 보험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원차마진의 개선이 쉽지 않은 구조다.

KB증권 이남석 연구원은 “보험주의 구조적인 회복 시그널이 될 수 있는 이원차마진의 개선이 지연될 전망이다”면서

“장단기 금리차의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사별로 자산-부채 듀레이션 매칭을 위한 장기채권의 비중 확대 과정에서 금리부자산에서의 보유금리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연동형 계약에 대한 공시이율 인화로 부채 부담이율을 꾸준히 낮추고 있으나 고금리확정형 계약에 대한 부담을 단기간 내 털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험 상품의 경쟁력 약화로 신규계약 유입세도 둔화됐다.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초회보험료는 3조원(전년 대비 -49.2%), 보장성 초회보험료는 6877억원(-21.9%), 저축성 초회보험료 2조3576억원(-53.9%) 등이다.

DB금융투자 이병건 연구원은 “생보사들의 저축성 신계약이 감소해 예정사업비 확보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장성 신계약 판매 확대에 의해 신계약비 지출이 늘어나 비차손의 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위험손해율 하락세가 멈춰 사차이익도 답보 상태이다”면서 “생보사의 경우 주가에서 차지하는 금리 영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민호 기자 kmh@

제56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4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 11월 14일~12월 6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 11월 17일~12월 8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11월 25일(일), 12월 2일(일), 12월4일(화)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 521-9111 (강남역 5번출구)

KEB하나은행 새로워진 AI 금융비서 ‘하이 बैं킹’

KEB하나은행은 똑똑하고 편리해진 인공지능 HAI(하이)뱅크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고, 12월 말까지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문자 인식 체계에 기반했던 기존 HAI뱅크 서비스에 손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STT(Sound to text), TTS(Text to sound) 기술, 외국 화폐를 촬영하면 원화 환전금액을 바로 알려주거나 공과금을 지로 촬영으로 수납하는 HAI렌즈 카메라 등 혁신적인 신기술이 추가로 도입됐다. 특히 3중 인공지능경망 구조의 딥러닝 대화형 AI 엔진이 새롭게 탑재되어 손님의 이야기를 한층 더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똑똑하게 응대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이 마련됐다.

KEB하나은행은 HAI뱅크서비스의 혁신적 진화에 발맞춰 오는 12월 말까지 ‘HAI(하이)뱅크 그랜드 오픈’ 이벤트를 실시한다.

HAI뱅크를 신규 가입하면 하나멤버스 앱에서 1000 하나머니를 선착순 5만명에게 지급하며, 이체·상품가입·공과금납부 등 거래시 추천을 통해 갤럭시 노트 9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김민호 기자

새로워진 HAI를 만나보세요
인공지능 금융비서 HAI 탄생

KB국민은행 3000억 규모 10년 만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KB국민은행은 지난 6일 3000억원 규모의 10년 만기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건부자본증권(상각형 후순위채권) 발행은 기발행 후순위채권의 자본 인정금액 감소와 자본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본확충 목적으로 지난달 24일 이사회결의를 통해 결정됐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0.68%를 가산한 2.96%으로 결정됐다. 올해 시중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우수한 영업실적과 양호한 신용도를 바탕으로 연기금과 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안상미 기자